

文化財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양주시, 문화유적 DVD · 지하철 광고 · 투어공연 등

양주시는 문화유적 분포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최대인 회암사지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등 많은 유·무형문화재를 간직하고 경기북부의 역사를 짚어주고 온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 못지 않게 널리 홍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는 문화유적 학습용 DVD 700매를 제작·배포했다. 시는 국가 등에서 지정한 유·무형문화재 46개에 대한 현황, 위치 등을 리포터가 소개하고 주요사항은 화면 하단에 자막을 삽입한 40분 분량의 DVD를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 41개소 및 문화예술단체 등에 배부하였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수원역 앞 옥외전광판과 지하철역사(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하고 있다. 양주시 지역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양주'라는 내용으로 수원역 앞 옥외전광판에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30초 분량의 홍보물을 6천489회 이상 방영하고 있다.

지하철역사내 혼잡도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광고효과가 가능하고 높은 가동률과 장시간 노출로 광고 인지도가 높은 지하철 2호선 역사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양주시의 문화재, 관광지 등의 이미지를



양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 못지 않게 널리 홍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무형문화재 투어공연 양주별산대놀이의 한 장면)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9월부터 2개월간 광고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교과서에 문화재를 도입하여 비닐덮개를 제작 중에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정서에 깊은 영향을 끼쳐, 청·장년기까지 지속되므로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유적 등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여 양주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무형문화재로 도안한 교과서용 비닐 덮개 15만2천매를 제작,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 시는

또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제2호), 소놀이굿(제70호)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상여와화다지소리(제27호), 양주농악(제46호)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연이 양주시 관내에서만 이루어져 소중한 전통문화를 타지단체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05년도부터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간·계층간 균등적인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양주시

무형문화재 투어공연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9월30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양주시 김재규 문화재단장은 양주시의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는 한편, 문화재가 시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신천변에 가마우지 서식 확인

하천변 자연생태공원화 사업으로 수질향상

동두천시의 젓줄인 신천변에서 철새인 가마우지 8마리가 노는 것이 발견됐다.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신천은 1970년대 말부터 오염되기 시작해 1980년대 들어서는 맨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에 시는 1990년대에 들어 찾집관로 설치 및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건립하고, 하천변을 자연생태공원화 하는 등 신천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질이 향상되기 시작해 현재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가하면, 백로·두루미·원앙·천둥오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신천 안흥교 하류에서 가마우지 8마리가 노는 것이 발견되는 등 동두천



동두천시의 젓줄인 신천변에서 철새인 가마우지 8마리가 노는 것이 발견됐다. 시가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38선정보화마을 日本에서 벤치마킹

일본 전자정부 벤치마킹단 연천군 백학면 방문

연천군은 9월6일, 행정부 국제협력팀을 통해 일본 전자정부 벤치마킹단이 선진 정보화 마을 견학을 요청하여 백학면 38선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 전자정부 벤치마킹단이 9월6일 연천군 백학면 38선정보화마을을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사진은 마을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일본 전자정부 벤치마킹단)

이날 방문단은 정보화마을을 위한 장(유동열)과 마을관리자(남미혜)가 안내를 하고 일본어로 제작한 동영상 상영, 정보화마을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PPT) 소개, 정보화마을 사이트(Url://38seon.invil.org)를 소개했다.

연천 38선정보화마을은 265세대 780명의 마을로 면적은 461km²다. 대상마을은 백학면 노곡리와 2리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다.

청정지역으로 마을에서 생산된 쌀, 콩은 친환경 농산물로 유명하고 특허받은 방배와 병포도는 지역 특산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많은 단체의 체험방문객이 늘고 있으며 일반체험 아이텟보다 마을특성을 살린 전라적인 마을특성 상품으로 안보체험과 전자상거래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체험단 방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서의욕 고취 책임기 운동 확산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 9월 다채로운 행사 마련

책 읽기 좋은 계절,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책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9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바깥하루도서관을 비롯해 동화작가와 만남, 독서왕 선발, 책 제목을 찾아라, 정기간행물 과월호 열가판매, 작은 전시회 등 다채롭다. 바깥하루도서관은 9월8일 오후2

시부터 정보도서관 광장에서 1일 독서행사로 전동놀이 체험 한마당으로 이루어졌다. 전동놀이를 체험 한마당은 한지공예, 활 만들기, 솟대와 장승 등 전통공예 만들기 체험, 달고나, 대패엿 맛보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미션과제를 풀어나가는 독후활동으로 주말은 가족이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만끽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어린이독서회 회원 40명은 경제개념을 알기 쉽게 체험하는 활동으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경제를 배워요!! 벼룩시장'을 운영했다.

작가와 만남 시간에는 유명 동화작가 서정오 선생님(19일 오전 11시)의 '옛이야기 매력' 초청 강연과 저자 팬 사인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편, 정보도서관 자원봉사자와 책 읽는 엄마 회원들은 정기간행물 과월호 320부를 9월10일부터 3일간 직접 시민들에게 열가 판매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책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國際結婚 이주여성 보건소 견학

동두천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 운영

동두천시 불현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5일 보건소 견학을 실시했다.

수강생 30여명과 자녀들이 참석한 이번 견학은 보건소 시설의 현황을 소개하고 알려 줌으로써, 국

제결혼 이주여성 가족들의 건강의식을 주지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날 보건소를 첫 방문하여 예방접종실, 보자보건실, 질병관리실, 임상병리실, 재활치료실과 구강보

건실, 영양상담실,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견학과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견학 수강생들은 결혼 초기의 여성과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모자건강과 산모건강교육, 영양상담실의 어린이야 놀이 등 구강보건실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부분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생활과 저소득층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 언어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등 여러 사안을 겪고 있다.

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불현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5일 보건소 견학을 실시했다.



제3회 양주시장기 합기도대회 2일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정성호국회의원, 유정인 부시장, 이종호시의회 의원, 체육회 관계자 및 합기도 선수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6개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백석호 란관이 우승을, 덕계 비룡관이 준우승을, 남평 한국관, 덕정 대건관이 3위를 차지했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9월3일, 주요인사, 마을주민, 언론단체 등 400여명과 함께 백학면 통구리 1064-20번지 일원에서 개최된 '연천백학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나눔으로 소통하는 세상

동두천시 제4회 자원봉사 축제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김경차)는 제4회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여 센터설립 10주년을 기념 및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23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축제는 나눔장터, 청소년 동아리 보영여고 밴드, 동두천어린이요즘합창단, 이담풍물패, 봉산탈춤, 자원봉사자 가요제 등의 공연행사와 미용협회와 헤어웨딩 쇼 등 축제에 참여한 5천여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직접 장애, 천문, 과학, 영어, 소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얼마나 가치있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료로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마련한 그대 그시절 주먹밥, 떡볶이, 빵튀기, 떡과 차 등의 시식코너를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제4회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고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23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마련했고 미용·발맛사지·수지침 봉사,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돌보미 증정, 건강검진, 다도체험 등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미 영어마을로 영어회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미21단장병들이 우리나라 전통 떡메를 쳐보는 등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찾아가는 야외音樂會 개최

양주시립합창단, 회천3동 어울림마당에서

양주시립합창단은 가을이 오는 김목에서 9월7일 그동안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겁고 활기찬 음악의 선율을 제공하기 위해 회천3동 어울림마당에서 야외 음악회를 개최했다.

1천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음악회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구성 음악회를 함께 하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했다.

김성봉 지휘와 조아라 반주로 시작되는 양주시립 합창단 공연은 '추

억, 그리움, 달밤, 그리운 금강산' 등 한국가곡을 시작으로 CM Song 메들리, Signal Music 메들리,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뮤지컬(오케라의 유령)중 All ask of you 이중창을 선보였다.

2부에는 남성 중창곡으로 '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성자들이 행진할 때'와 애창명곡 '담신과 함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Oh Happy Day' 등과 '아침이슬, 누이, 어머니, 삼바의 여인' 등 애창가요가 연주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